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의 단일사례 연구 분석 -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

배 회 분

(상명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최 연 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 단일사례 연구의 경향 분석 및 성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를 다룬 학술논문 77편을 대상으로 텍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빈도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헌고찰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사례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회지에 게재되는 전체 논문 대비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둘째,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키워드의 빈도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구획한 기간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뚜렷하게 주목되는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다가 최근에는 ‘변화’, ‘내담자’, ‘연구’와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단일사례연구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질적 연구 성격의 사례 연구가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 단일사례 연구의 적절한 방향 정립과 활성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연구와 임상과의 연계를 이루는 증거기반 실천의 풍토 정착에 기여하려는 탐색적 기초작업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 단일사례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사례연구, 실험설계연구

* 본 연구는 2017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2018년 한국가족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번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Tel : (02) 2287-5317 / E-mail : yschoi@smu.ac.kr

I. 서 론

다른 심리개입 분야와 마찬가지로 체계적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치료에서도 이론과 실제의 연계, 연구와 임상적 결합은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실천 개입을 목표로 하는 가족치료에서는 이론적 모델들이나 연구의 산출물들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최종적인 관심사이다. 또한 이론적 모델들에 기초한 연구의 산출물들은 가족을 둘러싼 임상 현장에서의 현실적 적용을 통해 그 효과와 가치가 검증되기도 하면서 이론적 차원에서 수정, 보완되기도 한다. 최근 가족치료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실천’(Johnson, 2018)은 이를 지향하는 심리개입 분야의 변화 추세(Kazdin, 2008a, 2008b)를 가족치료에서도 반영하는 결과로서, 향후에도 가족치료가 과학성과 현실 검증력을 담보하고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한국 가족치료 분야에서도 증거기반 실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해 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하고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가족치료 분야에서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고급 교육 과정의 설치나 연구 인력의 확보 등 연구 기반은 그다지 견고해 보이지 않으며(최중진, 고정은, 2018), 또한 연구시설이나 연구비의 지원 등 연구 여건도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흡한 연구 기반과 연구 여건은 가족치료 현장에 투입되는 임상인력 대비 가족치료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불균형, 고급 연구방법론의 적용이나 과

학적이고 체계화된 연구절차에 따른 연구의 부족 등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척박한 여건에서도 한국 가족치료 연구에서 연구대상, 연구주제나 연구방법이 다양해지고 연구의 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는 사례 연구, 그 중에서도 단일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왔다(김현수, 노미화, 조성봉, 2018; 최빛내, 최우정, 최연실, 2018). 이는 아마도 한국 가족치료의 미흡한 연구 여건 속에서 가장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단일 상담사례 연구임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일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 연구는 고액의 연구비 투입이나 상당한 규모의 연구인력, 연구도구 및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상담현장에서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개입한 경험과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자가 ‘친숙한’ 가족치료 연구방식으로 선택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심리치료의 임상분야에서는 단일사례 연구를 중시해 왔는데, 그 이유는 임상적 가치 때문이었다. 흔히 Freud의 ‘Anna O’의 사례나 행동주의상담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단일사례 연구방법은 심리학에서 나왔고, 개입을 통한 변화를 보여주는 데 관심 있는 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azdin, 2011). 하지만 심리학 분야에서 단일사례 연구의 전통과 중요성 강조에 비하여, 실제 연구는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때, 외국에서도 가족치료연구에서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는 경우

가 많지 않았고, 또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었다(Dickey, 1996). 또한 단일사례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Kazdin, 2011). 한편, 한국 가족치료에서는 대부분 통제되지 않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중심으로 한 단일사례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일사례 연구들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수의 연구들이 단일사례를 ‘일화적(anecdotal)’으로 도입하였고, 둘째, 개발된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양적 통계분석의 보완 성격으로 단일사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셋째, 단일사례 연구들 가운데에는 사례 보고 기록의 성격을 갖는 연구들이 다수 나타났다.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 가족치료 분야의 단일사례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최연실, 2018). 첫째, 많은 연구들이 주로 통제되지 않은 질적 사례 연구에 치중하였다. 원래 질적 연구방법의 한 가지인 사례연구가 그 자체로서 시도되는 것은 비판적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이를 상담과정과 연결시켜 상담과정 그 자체가 사례 연구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어떤 연구가 질적 연구로서 기술적(descriptive)인 수준에서 상담과정을 묘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건에서 상담의 효과성을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상담적 개입이 효과성을 지니려면 엄밀한 통제조건이 부여되고 사전에 조건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질적 연구로서의 사례연구에서 이러한 설계과정을 엄밀히 기획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질적 연구의 본질적 성격과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둘째, 한국 가족치료 분야의 단일사례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엄격한 실험설계를 도입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는 실험이나 관찰 연구가 요원한 현실로 보인다. 최근 관찰을 통해 부부의 대화주제 및 상호작용 유형을 미시분석한 전영주와 김수지(2018)의 연구, 또한 비디오 관찰을 통한 부부의 상호작용에 코딩시스템을 활용하여 접근한 박우철(2018)의 연구가 소개되었으나, 이 연구들은 단일사례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실험이나 관찰 등의 연구방법을 활성화시킨 심리학, 아동학 분야의 연구들에 비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실험이나 관찰 등의 연구방법들이 소원시되고 배제된 경향이 있으며, 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 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 지배적인 연구방법은 사례 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 설문지조사를 통한 자기보고 점수를 통계분석한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김현수 등, 2018; 최빛내 등, 2018).

셋째, 특히 상담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단일사례의 상담과정을 활용하는 사례기록 보고 성격의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를 지닌다. 일단 ‘연구자’와 ‘상담자’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연구자가 상담적 개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상담과정의 기술이 상담사례 발표 기록과 차별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보고됨으로써 사례 기록 보고서와 과학적 논문 사이의 구분과 경계가 애매해진다. 물론 상담자 자신을 포함하여 문화기술지적 방식으로 상담 상황에 접근하는 단일사례연구(문혜리, 김명찬, 2017; 손고은, 김명찬, 2017)는 예외로 할 수 있겠으나, 사례 연구에서 전

반적으로 상담 개입의 효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척도가 제시되지 않거나 변화의 유의미성이 납득될만한 아무런 장치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상담자이자 동시에 연구자인 자신이 상담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학술논문에서 담보해야 할 논리적 설득력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는 사례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졌고, 특히 단일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이 연구들이 질적 연구방법론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인 ‘사례연구(case study)’(Creswell, 2007, 조홍식 등 역, 2010)로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담사례를 기록한 의미로서의 사례 연구인지도 명확히 따져지지 않았다. 상당수의 연구들이 단일사례를 대상으로 접근하면서 주로 실험에 기초한 양적 조사인 ‘단일실험설계(single-case experimental designs)’와도 구분시키지 않고 막연히 ‘사례 연구’로 지칭하였다. 사실상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단일 사례 연구’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양적 연구, 즉 ‘단일실험설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Dugard, File, & Todman, 2012). 하지만 이러한 구분 없이 ‘사례 연구’로 지칭하는 것은 학문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학문적 엄격성을 해칠 수 있다. 요컨대, 단일한 대상을 질적으로 접근하는 ‘사례연구(case study)’와 단일한 분석 단위에 대해 양적으로 접근하는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례연구(case study)’라는 용어를 쓰고자 할 때에는 상담사례를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질적 연구방법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구 작업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 가족치

료연구 분야에서 단일사례 연구를 둘러싸고 용어상의 혼란 문제가 있고, 또 연구방법으로서의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사례 연구라는 용어의 정립 문제와 더불어 사례 연구의 적절한 접근 방식도 성찰해 보아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재 연구 여건상 이점이 많다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모색되어야 할 대안적인 사항들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는 그동안 다수로 진행된 단일사례 연구에 대한 성찰 작업이 거의 진행된 바 없고, 단일사례 연구의 가치와 의미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도 드물었다. 단일사례 연구가 연구 작업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현재의 상황은 단일사례 연구의 본래적 의미와 성격 규명, 방법 및 절차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가족치료연구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를 다룬 학술논문들을 대상으로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 단일사례 연구의 경향 분석 및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 단일사례 연구의 비율을 살펴보고,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한 단일사례 연구의 기간별 발표 변화 추세 및 키워드 빈도분석을 한 다음, 단일사례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탐색적인 기초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본 연구는 한국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 단일사례 연구의 적절한 방향 정립과 활

성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연구와 임상 의 연계 를 이루는 증거기반 실천의 풍토 정착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사례 연구논문 발표의 양적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키워드의 빈도는 어떠한가?

셋째,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단일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의 사례연구와 양적 연구로서의 실험설계 연구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단일사례 연구의 특성을 이러한 사례연구와 실험설계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단일사례 연구의 방법을 소개한 다음, 각 연구방법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외국의 경우, 현재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단일한 사례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방법의 다양화도 활발하게 시도되지는 않고 있는 형편이다(Mennenga & Johnson, 2014).

1. 단일사례 연구의 특성

1) 사례연구

사례연구(case study)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사례에 대해 문서, 가공물,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탐색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이론을 확장 또는 일반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네이버지식백과, 2019). 사례연구는 대량관찰이나 대표 표본에 의하지 않고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특히 단일사례연구는 단일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면밀한 탐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보다 완성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준비 단계에서 활용되기도 한다(고영복, 2000).

‘사례연구’라는 용어는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되어왔는데,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지만, 학문에 따라서는 개인, 집단, 조직, 기관, 문화, 사회 등 여러 수준에서 적용되어 왔다. 즉, 사례연구는 특정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또는 조직, 문화, 사건 등의 대상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하며, 충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대상의 특징이나 문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Creswell(조홍식 등 역, 2010)은 사례연구가 맥락 속에서 다양한 정보원(source)에서 얻은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시간이 경과에 따라 경계가 형성된 체계나 하나의 사례 혹은 여러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다양한 정보원이란 관찰, 면접, 문서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일컫는 것이다. 사례의 맥락은 그 사례를 위한 물리적 상황이나 사회적·역사적·경제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사례연구는 단일사례(single-case)와 다중사례(multiple-case)로 구분된다. 단일사례는 일반적인 사례연구 방식으로 하나의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기존 이론을 검증하거나 전형적인 사례, 희귀하고 독특한 환경의 사례,

과학적 관찰이 불가능했던 현상에 새롭게 접근하는 경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방법에 이용된다. 이에 비해, 다중사례는 동일한 연구 내 두 개 이상의 사례를 다루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 반복해 실험하고 검증한 결과를 이끄는 반복실험의 접근논리를 사례연구에 적용시킨 것이다(Yin, 2009).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사례연구의 목적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를 조사하는 통계적 일반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들을 확장하고 일반화하는 분석적 일반화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Stake(1995)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사례연구를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첫째, 본질적(intrinsic) 사례연구로, 사례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되며, 연구자는 특정 사례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연구를 실행한다. 이 경우 추상적인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적 해석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례가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 질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사례연구를 질적 연구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시도한 논문들이 몇 편 있다(구자경, 2016; 김금자, 2012; 손고은, 김명찬, 2017; 문혜리, 김명찬, 2017). 둘째, 도구적(instrumental) 사례연구로, 해당사례의 이슈를 예증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전반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설명하기 위해 특정사례를 하나의 정보원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연구는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 2000년대 초반에 비교적 활발히 시도

되었지만, 현재는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고미영, 2000; 김성천, 2000; 김유순, 2000; 노혜련, 2003; 정혜정, 2012). 셋째, 집합적(collective) 사례연구로, 여러 사례를 동시에 연구해 현상이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행되는 연구방법이다. 이는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일사례 연구와는 분석대상의 수 측면에서 다른 것이다.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는 이러한 집합적 사례연구는 발표되지 않았고,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여성 10명을 하나의 소집단으로 구성해 접근한 한 연구(최혜정, 2015)가 시도된 바 있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양적 연구와는 확연히 다르다(Kazdin, 2011). 이러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사례연구는 주로 묘사적, 구체적, 일화적이거나 대화적 방법을 통해 설명을 제공하거나 다른 변수들을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Rizvi & Nock, 2008; Tate et al., 2008). 사례연구가 가진 한계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에서 단일사례를 활용하는 사례연구가 종종 시도되기도 한다. 이는 상담 등의 연구 상황에서 단일사례 연구가 적당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고, 사례연구가 갖는 강점과 가치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Kazdin, 2011). 첫째, 이미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사례연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반박하거나 확장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반증 사례의 제공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사례연구는 탐색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와 가설의 원천이 된다. 셋째, 하나의 사례가 대다수의 사례를 대표하거나 매우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경우에 일상생활이나 평범한 상황에서 환경과 조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 경우, 사례연구는 조사대상의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므로 상담 상황에서는 이에 기반 해서 치료기법을 개발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넷째, 사례연구는 희귀한 현상을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연구함으로써 사실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사례가 매우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 발생한 사례의 희귀성으로 인해 분석과 보고만으로도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했던 현상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유용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면, 뇌 연구를 할 수 없었던 1848년 당시 미국에서 폭발물 사고로 긴 쇠파이프가 머리를 관통하는 사고를 입고 살아나 성격이 바뀌어버린 피니스 게이지(김대식, 2014)의 사례연구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섯째, 종단적인(longitudinal) 사례연구의 경우에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이때에는 특정 조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이론의 초점이 맞춰지며,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섯째, 어떤 상황의 특수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상황과 관련된 문화적 환경이나 배경 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관 지어 파악이 가능함으로써 설득적이고 동기적인 가치를 지닌다.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와 관련해 볼 때, 사례연구는 전통적으로 임상현장의 경험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활용되어 왔고, 이런 측면에서 가족치료 연구에서도 사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가족치료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단일사례 연구들이 그 임상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2) 실험설계연구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single-case experimental design research)는 N=1인 실험설계로서 처치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임상적 사례연구에는 의도된 처치가 도입되지 않지만, 단일사례 실험설계연구에는 의도된 처치가 도입된다. 따라서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 방법은 사례의 수, 피험자의 수가 1일뿐이지 다른 실험설계 연구와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있다. 처치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면에서 다른 실험설계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자세한 기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임상적 사례연구와 공통점이 있지만, 독립변인에 대한 체계적 조작이 있고, 그 효과를 종속변인의 관찰을 통하여 확인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사례연구와 차이점이 있다(네이버블로그, 2019).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는 양적으로 측정하며, 실험적 조작 형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입의 효과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반복 사용하는데, 2가지의 핵심적인 필요조건이 있다. 하나는 시간에 따른 종속변수의 지속적인 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독립변인을 통제하는 능력(개입의 제거와 재도입, 개입의 변화)이다(Dugard et al., 2012).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의 분석 단위는 전통적으로는 개인이나 개인들의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분석의 단위는 개인, 커플, 가족이다. 한 체계(system)도 하나의 단위가 되므로, 가족치료연구에서 주된 분석단위가 되는 한 가족도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는

각 관찰 시점에서 처치 점수를 제공하는데, 통상 이것이 분석의 단위가 된다.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에서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는 다른 단계 동안의 과정 연구를 시도하며 그 단계의 점수 변화로 개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한다. 부가적으로, 연구자는 개입 수행의 산출물을 알기 위하여 특정한 회기들을 관찰할 수 있다(Dickey, 1996).

통계분석 방법의 발달로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도 진화해가고 있다. 가장 용이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각 실험단계에서의 데이터가 겹치지 않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Scruggs와 Mastropieri(1998)는 이와 관련해서 PND(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유용한 범위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PND가 90% 이상이면 매우 효과적인 처치, 70~90%이면 효과적 처치, 50~70%이면 어느 정도 효과적 처치, 50%이하이면 비효과적 처치에 해당된다. 이 기준에 비추어볼 때, 겹치는 백분율이 낮을수록 개입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PND 이용의 장점은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개입의 효과가 매우 클 때는 당연히 시각적 조사의 사용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의 치료적 가치나 중요성은 행동 변화가 실제로 내담자의 기능을 높이는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Kazdin, 2011).

부가적 통계분석은 시각적 조사를 위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용한다. 통계적 분석의 사용은 대상자 내적 변이(intrasubject variability), 새로운 연구영역의 조사, 중요할 수 있는 조그만 변화, 자료 평가에서의 반복성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다. Kazdin(1982)은 이러한 통계분석이 유용한 경우는 기초선

(baseline)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새로운 처치를 평가할 때, 처치 효과가 불분명할 때, 외생적 요인을 통제할 때라고 말한다. 부가적 통계분석에서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시계열분석의 사용(박성희, 2004)이다. 둘째, 데이터의 비독립성을 고려한 t-test이다. 셋째, 분산분석(ANOVA)의 반복적 측정이다. 이 때는 2개 이상의 다른 조건 하(처치단계)에서 단일 표본의 종속변수 값을 비교함으로써, 경향을 이해하고 개별(단위) 차이에 기인한 변이를 제거할 수 있다.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자료의 분석에서 연구자가 시각적 조사를 사용할지, 통계적 분석을 사용할지, 아니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많은 요인에 달려 있는데, 결국 실험적 설계와 연구의 목표와 가설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Mennenga & Johnson, 2014).

단일사례 실험설계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관점은 내담자에게 수행하는 다른 개입들의 효과성을 사정하는 능력과 연관된다. Kazdin(1982)은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적 기준(experimental criterion)과 치료적 기준(therapeutic criterion), 2개의 기준이 있다고 하였다. 실험적 기준은 개입 동안의 행동과 개입이 수행되기 전 행동의 비교를 하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처치 효과를 반복해서 행동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면 충족이 된다. 시각적 검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Kazdin(1982)은 “그 래프화된 자료를 시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입 효과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p. 232)라고 언급하였다. 통상 평균의 변화, 수준의 변화, 추세의 변화, 변화시간의 길이, 그리고 질적 측정치의 사용을 검토한다. 이에 비해, 치료적 기준은 개입

동안의 처치가 내담자의 기능을 실제로 높이는 것에 기여했는지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단일사례 실험설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Kazdin, 2011). 첫째, 수행하기 쉽다. 둘째, 특정한 치료모델, 치료적 처치의 개입이나 여러 개입들의 효과성을 연구할 때 가장 유용하다. 셋째, 내적 타당도가 높아서 엄격한(rigorous)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넷째, 다른 커플이나 가족에게도 모델의 효과성을 조사할 때 사용 가능하다(예: 우울, 불안, 혹은 커플만족 등).

2. 단일사례연구의 절차

1) 사례연구

사례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설계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특히 왜 사례연구 방법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자료수집의 준비 단계로, 연구수행 시 지침이 되는 사례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규칙과 절차가 포함된다(Yin, 2009, 신경식, 서아영 역, 2011). 셋째, 자료수집 단계이다. 사례연구에서 자료수집은 주로 인터뷰, 관찰, 내·외부 문서 분석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넷째, 자료분석 단계로, 자료수집을 통해 사례의 세부적인 기술을 하며, 주제나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나 주장을 진행한다(Stake, 1995). 이 때, 사례의 맥락 또는 사례 자체가 나타내는 상황을 고려한다. 다중 사례연구의 경우 각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과 그 사례들 내의 주제들을 제시하고, 사례들에 걸쳐 있는 주제를 분석하며, 사례들의 의미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가 관심을 지니

고 있는 단일 사례연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째, 결과 도출 단계이다. 분석 결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이끌어내야 하며, 주요개념과 연구목적 간의 관계가 진술되어야 한다. 이는 Lincoln과 Guba(1985)의 용어를 빌리자면,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보고하는 것이다.

2) 실험설계연구

단일사례 실험설계의 절차는 다음의 세 단계를 따른다(Dickey, 1996; Mennenga & Johnson, 2014). 첫 번째는 기초선(baseline) 단계이다. 기초선은 ‘기저선’, ‘기준선’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처치가 없는 상태에서 표적행동을 관찰한다. 두 번째는 처치 혹은 중재(treatment)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처치가 있는 상태에서 표적행동을 관찰한다. 이 개입(intervention)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증명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기법 등이 시행된다. 세 번째는 개입의 효과를 기능해보는 평가(evaluation)의 단계이다.

단일사례 실험설계의 절차는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처치의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는 실험설계를 적용해야 하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실험설계의 유형이 갖는 특징과 장,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의 유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Dickey, 1996; Dugard et al., 2012; Kazdin, 2011). 첫째, A-B 설계(A-B designs)이다. 먼저 기초선을 측정하는데, 여기에는 2~5일이 요구될 수 있고, 두 사람 이상이 관찰하기가 권장된다. 그 다음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처치의 효과성을 살피는데, 여기서 나타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연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A-B-A 설계(A-B-A designs)이다. 이 유형에서는 처치 개입을 한 후에 한 번 더 관찰을 하고 실험을 끝내게 된다. 이는 처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유형의 방법은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문제로 인한 고통을 받는다면 관찰만 하고 끝낼 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도 A-B 설계에서 나타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이 처치의 효과가 단순히 처치의 효과인지 외부의 영향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셋째, A-B-A-B 설계(A-B-A-B designs)이다. 이는 ‘반전설계(reversal designs)’라고도 불린다. 이 유형은 기초선을 측정하고 처치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쉬면서 측정기간을 갖는 것이다. 다시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두 번의 처치 기간에서 두 번 다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형도 A-B-A 설계처럼 윤리적 문제로 인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유는 중간에 처치를 하지 않는 것이 대상자에게 문제로 인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A단계에서 문제행동이 다시 나타나면, 앞으로도 이 처치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게 될 수 있다. 넷째, B-A-B 설계(B-A-B designs)이다. 이 유형에서는 기초선 측정 없이 곧바로 처치를 실시하고, 그 다음 관찰 후 다시 처치를 실시한다. A-B-A 설계처럼 처치의 효과가 처치 자체에 있다는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섯째, 중다 기초선 설계(multiple-baseline designs)이다. 이 유형은 ‘복수 기저선 설계’라고도 불린다. 좀 더 진화된 형태의 단일사례연구 설계 방법으로서 행

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특정의 치료기법을 여러 행동과 여러 상황 및 여러 내담자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유형 4개를 소개하자면, 행동 간 중다 기초선 설계, 상황 간 중다 기초선 설계,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가 있다. 여섯째, 중재비교 설계(comparative treatment designs)이다. 이 유형은 여러 개의 처치개입을 비교하여 어떤 처치가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새로운 처치가 이전에 나온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밝혀서 새로운 처치 방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대표 유형 3가지를 소개하자면, 중다중재설계(multiple treatment designs), 교대중재설계(alternate treatment designs), 동시중재설계(simultaneous treatment designs)이다. 일곱째, 기준변동설계(changing criterion designs)이다. 이는 중재변인을 이용하여 종속변인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살피려고 하는 것이다.

3. 단일사례연구의 문제

1)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실험적 조작이 부족하므로, 이를 상담 연구에서 활용하게 되면 인과관계가 검증되거나 관찰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과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곤란하고 해석상 편향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가치 및 주관에 개입되기 쉬우며 적절한 사례 설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자료를 수집할 시점에서 자료를 선택적으로 즉 연구

자의 임의대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로부터 나온 발견을 더 많은 다른 사례로 적용시키려할 때 일반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네이버지식백과, 2019).

둘째, 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일화적 정보로 활용되기 쉽다. 상담 연구에서 사례연구가 활용될 때, 갖는 문제점 중에 흔히 나타나기 쉬운 것이 내담자의 과거 구성, 과거 사건의 기억은 특히 감정이 실려 있을 수 있고 왜곡되거나 선택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치료자의 해석이나 판단이 보태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나타나는 결과에 많은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 통상 사례연구에서는 사후예측적이거나 회상적인 설명이 초기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해서 과학적 방어력이 약하다.

넷째, 사례연구는 그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추론(inference)을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이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례연구가 조건을 통제하고 체계적 사정을 실시하거나 확정된 절차를 수립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의 사건들 간 관계나 연관성이 지켜보는 사람, 즉 사례 묘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된다. 이러한 묘사의 비체계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이 일반적으로 사례연구를 타당한 추론화의 방법으로서 수용하지 못하게 한다(Mennenga & Johnson, 2014). 이러한 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가족치료연구에서 ‘사례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담 과정을 기술하고 그 효과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사실상 본래적 의미의 사례연구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설계연구

단일사례 실험설계연구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도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잘 수행된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는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가 높다(Mennenga & Johnson, 2014). 이 연구방법은 분석 대상이 되는 개인, 커플, 가족 각자는 단일 분석단위로써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방법에서는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다(Kazdin, 2011). 이 연구방법에서는 사례연구에서는 어려웠던 무작위화(randomization)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설계방법 중의 하나인 A-B-C-B-C 설계나 A-C-B-C-B 설계를 통해서이다. 설계상 이 연구방법은 반복을 포함하므로 내적 타당도가 증가할 수 있다. 둘째, 단일사례 실험설계연구는 반복을 포함하게 되면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가 낮아진다(Dickey, 1996; Mennenga & Johnson, 2014). 이는 참여대상자가 단일하고 통제 정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구를 다른 참여자와 다른 맥락에 대하여 반복하면 외적 타당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연구는 순수한 의미에서 단일사례 실험설계연구가 되지 못한다. 셋째, 단일사례 실험설계연구는 결과의 해석과 변인들 간 관계의 설명에서 혼동의 간격을 축소하면, 즉 기초선의 사용과 개인들 자신의 통제를 실시하면,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인이나 관계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알기 쉽고 개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변화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넷째,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는 결론 타당도(conclusion validity)가 약하다. 결론 타당도는 결

과가 어떻게 질적으로 구축되고, 결과로부터 어떻게 추론이 모이는지와 관련이 된다. 측정(measurement)은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표본 크기가 작은 연구들은 잠재적으로 결론 타당도를 위협받는다. 그 이유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거나 중간 정도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한편,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는 다른 측면에서도 한계점이 있다. 그것은 이 연구방법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특히 가족치료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도 덜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Mennenga & Johnson, 2014). 그 이유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무작위화된 임상 실험에 대한 연구자금(funding)의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단일사례 연구들은 배제되기 쉬웠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금을 주는 기관에서 예비조사 자료(pilot data)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일사례 실험연구 설계는 타당한 예비조사 자료를 얻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망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계와 연구방법이 세련화되면서, 연구자들이 점점 더 대규모의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심을 지니게 되어 상대적으로 소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소원시되었다. 최근 사회과학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분석 열풍을 보더라도 이러한 현실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단일사례연구는 표본 수가 작아서 레이터망에 걸리지도 않고 가르쳐 지지도 않는 실정이다. 셋째, 단일사례 실험설

계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지속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방법이 실시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종속변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능력에서 진보가 있었고(Mennenga & Johnson, 2014), 고급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넷째, 단일사례 실험설계 연구에서는 일단 한 번 전달된 개입을 제거시키는 것이 방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보완하는 방법이 점진적으로 개발(Kazdin, 2011)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5년간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 연구 관련 논문 77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가족치료학회지』는 2015년부터 학술지의 명칭을 『가족과가족치료』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 발표된 단일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학술지로 범위를 한정된 것은 한국에서 가족치료 연구와 임상역사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가족치료의 발전에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학회이기 때문이다. 단일사례 관련 연구 논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1단계로 검색엔진(KISS, KERIS)에서 ‘단일사례’, ‘사례연구’, ‘단일사례 실험설계’라는 키워드로 서지를 검색하였다. 그 다음 2단계로 검색된 연구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면서 해당연구가 단일사례 관련 연구인지를 확인하

는 절차를 거쳐 최종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 발표된 단일사례 연구들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단일사례 연구 발표의 양적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연구문제는 단일사례 연구 내용에서 나타나는 키워드의 빈도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의 연구문제가 제기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원래 내용분석 기법의 한 종류로서 단어들의 근접 출현 정보를 바탕으로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통해 텍스트 안에 구성되는 연결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상, 2013). 텍스트 마이닝의 특징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한 후 다른 키워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해당 텍스트가 갖고 있는 범주를 찾아내는 식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수상, 2014).

본 연구는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논문이 아니고, 두 개의 연구문제는 단일사례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초보적 수준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분석과정은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한 후 키워드별 빈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키워드들을 군집으로 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지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키워드들의 군집을 표시한 도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 그래프를 제시하고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 결과에서 도출되는 키워드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키워드를 선별하여 빈도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전반적인 단일사례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들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된 연구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텍스트로 데이터화하였고,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정제는 텍스트(Textom: Text to Matrix)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텍스트는 한국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상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제할 뿐 아니라 데이터분석이 가능하도록 매트릭스를 추출할 수 있다(권소영, 박지수, 이재림, 2018).

2. 분석들의 도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 발표된 단일사례 연구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이 연구 논문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는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하여 연구논문의 발표 수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단일사례 연구논문이 처음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간으로 나누어 1993~1997년, 1998~2002년,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 등 다섯 기간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서는 연구논문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 번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설정된 다섯 기간 동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상위 10순위까지 나타난 키워드들의 빈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 질적 측면에서는 세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몇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정리된 차원은 저자, 발표년도, 연구방법, 분석 대상, 개입모델, 자료분석 방법 등이다.

IV. 결 과

1. 단일사례 연구논문 발표의 양적 변화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 단일사례 연구논문 발표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 연구의 기간별 발표 수치 및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1> 참조). 이 표에 따르면, 창간호인 1993년부터 본 연구가 분석 기간으로 설정한 2017년까지 근 25년간 발표된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개수는 지

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수는 386편인데, 그 중 단일사례 연구논문 수는 77편으로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19.9%이다. 한편, 학회지 게재 전체논문 수 대비 단일사례 연구논문 수의 비율을 199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구간별로 살펴보면, 1998년~2002년까지는 예외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키워드 빈도

본 연구에서는 기간별로 발표된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제목과 초록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상위 10순위까지에 해당하는 핵심어의 빈도를 살펴보았다(<표 2> 참조).

먼저 학술지가 처음으로 발행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을 보면, ‘치료’(17회)라는 단어가 가장 두드러지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가족치료’(12회)가 많이 출현한다. 또한 ‘적용’(10회)이나 ‘기법’(9회), ‘사례’나 ‘문제’(7회)라는 키워드도 많이 등장한다. 한국에서 가

〈표 1〉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 연구의 기간별 발표 (N=77)

구분	학회지 게재 전체논문 수	단일사례 연구 논문 수	단일사례 연구논문 수 /전체논문 수(%)
1993년 ~ 1997년	35	10	28.6
1998년 ~ 2002년	56	10	17.9
2002년 ~ 2007년	65	15	23.1
2008년 ~ 2012년	95	22	23.2
2012년 ~ 2017년	135	20	14.8
합계	386	77	19.9

〈표 2〉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 연구논문 내용에서 나타나는 키워드 빈도
(N=77)

	1993년~1997년	1998년~2002년	2003년~2007년	2008년~2012년	2013-2017
1순위	치료(17)	가족치료(24)	내담자(36)	가족치료(51)	변화(58)
2순위	가족, 가족치료(12)	이혼(20)	변화(29)	변화(47)	상담(41)
3순위	적용(10)	문제(19)	상담, 가족치료(28)	가족(46)	가족(38)
4순위	기법(9)	여성주의 가족치료(15)	문제(27)	연구(43)	경험(35)
5순위	사례, 문제(7)	한국(14)	가족(25)	내담자(35)	연구(34)
6순위	문제해결, 아동, 방법, 해결중심단기치료, 통합(6)	치료(13)	아동(23)	부부(34)	과정(31)
7순위	이론, 간호, 거부, 연구, 등교, 행동(5)	부부(11)	연구(20)	상담(32)	방식, 부부(29)
8순위	활용, 사례연구, 상담, 아내, 실제, 사람(4)	과정, 가족, 연구(10)	치료(16)	치료(27)	부모(28)
9순위	가족상담사, 한국, 의사소통, 모델, 가족문제, 초점, 고부갈등, 학과, 워크샵, 전략, 소개, 협조, 개인, 자녀(3)	적용, 이론, 상담(9)	의사소통, 개입(15)	의사소통(25)	활용, 아내(27)
10순위	정신, 탐색, 논문, 학습, 역기능, 제공, 분석,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 상호작용, 증가, 어머니, 시작, 변화, 남편, 가정, 병원, 내담자, 부분, 검토, 단기, 참여, 과정, 중재, 국내, 도움, 음주, 접근, 중재, 면담, 문, 요소 등(2)	해결, 기법, 중재(8)	사례연구(14)	활용(24)	가족치료(26)

족치료가 발달할 초창기 당시의 관심사가 이론적 모델의 적용이나 기법, 혹은 사례나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기간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6순위부터 10순위까지 나타나는 단어의 수가 너무 많아 논문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내용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에는 ‘가족치

료’(24회)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이혼’(20회), ‘문제’(19회)라는 용어가 많이 출현한다. 이는 학문 영역에서 ‘가족치료’라는 용어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한국 사회에 IMF위기가 닥치고 경제 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는 현실에서 단일사례 연구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이한

것은 이 시기에 ‘여성주의 가족치료’(15회)가 다른 시기와 다르게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로 미국 가족치료 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열풍으로 몰아닥친 페미니스트 가족치료모델이 이 시기에 한국사회에 소개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14회), ‘치료’(13회), ‘부부’(11회) 등이 주목을 끄는 키워드인데, 한국의 현실에서 가족치료를 행할 때 부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는 ‘내담자’(36회)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는 가족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출현하는 단어가 ‘변화’(29회), ‘상담’이나 ‘가족치료’(28회), ‘문제’(27회), ‘가족’(25회), ‘아동’(23회) 등이다. 변화를 목적으로 상담이나 가족치료에서 가족과 아동의 문제를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용어는 또다시 ‘가족치료’(51회)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변화’(47회), ‘가족’(46회) 등의 주요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를 통해, 단일사례 연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가족 내에서의 변화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의 단일사례 연구에서는 ‘연구’(43회)라는 용어가 특이하게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 단일사례를 다루는 현장과 연결된 연구에 대한 의식 제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서 우선적으로 주목을 끄는 핵심어는 ‘변화’(58회)이다. 그 다음이 ‘상담’(41회)이다. 이는 가족치료에서 가장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다른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처럼 결국에는 변화임을 상

기시켜준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38회), ‘경험’(35회), ‘연구’(34회)의 순인데, 단일사례연구가 문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가족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경향

창간호에서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학술지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단일사례 연구 논문은 총 77편이다. 이 연구 논문들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 나타나는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77편 중 5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질적 연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제목에 ‘사례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험설계 연구는 단 한 편도 없다. 5편의 논문은 문헌 연구가 4편(고미영, 2000; 김성천, 2000; 김유순, 2000; 노혜련, 2003), 이론연구가 1편(정혜정, 2012)이며, 이 연구들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한 단일 상담 사례를 논문 내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연구자들이 직접 개입한 사례들이 아니며, 연구 논문의 논지를 위하여 삽입한 사례이므로 도구적(instrumental)인 사례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질적 연구방식을 취하고 있는 단일사례 연구논문들 중 Stake(1995)가 말한 본질적인(intrinsic) 사례연구(case study)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비교적 소수이다. 이 중 김금자(2012)의 연구는 문화기술지, 구자경(2016)의 연구는 내러티브 분석, 문혜리와 김명찬(2017), 그리고 손고은과 김명찬(2017)의 연구는 협력적 문화기술지의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분석대상이나 단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가족을 단일사례로 설정하고 있으나, 77편

〈표 3〉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 연구의 전반적 경향 (N=77)

저자	발표연도	연구방법	분석 대상	개입 모델	자료분석 방법
김유숙	1993	질적 연구 (사례연구)	등교 거부 14세 막내딸, 47세 아버지, 45세 어머니, 18세 큰아들, 17세 둘째아들(가족)		가족치료 사례 분석
최인숙	1994	질적 연구 (사례연구)	주의산만증이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동(가족)	해결중심치료	가족치료 사례 분석
김종옥, 정수경	1994	질적 연구 (사례연구)	고부갈등을 겪는 52세 중년여성 부부(부부)	구조적 가족치료	부부치료 사례 분석
최선남	1995	질적 연구 (사례연구)	도벽증이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동(가족)	가족미술치료	가족치료 사례 분석
김종만	1995	질적 연구 (사례연구)	불안장애를 겪는 30대 환자(부부)	역설지향적 방법	부부치료 사례 분석
안양희	1995	질적 연구 (사례연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흡연하는 가족원(가족)	해결중심치료	가족치료 사례 분석
이영분	1995	질적 연구 (사례연구)	학업 문제를 겪는 14세 아동(개인)	해결중심치료	개인치료 사례 분석
정문자	1995	질적 연구 (사례연구)	17세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개인)	해결중심치료	개인치료 사례 분석
김효남, 박태영	1996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의사소통 문제를 지닌 49세 무직의 알콜중독자 남성(개인)		개인치료 사례 분석
김영애	1996	질적 연구 (사례연구)	부부갈등을 겪는 45세 남편, 38세 부인(부부)	통합적 가족치료	부부치료 사례 분석
김희진	1998	질적 연구 (사례연구)	강박증을 겪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모녀)		가족치료 사례분석
이정연	1999	질적 연구 (사례연구)	우울증을 겪는 44세 기혼여성(부부)		부부치료 사례분석
신성자	2000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이혼 위기상황에 있는 33세 여성(부부)	이혼중재	부부치료 사례분석
김진숙	2000	질적 연구 (사례연구)	특수목적고 1학년 여학생(가족)	대상관계이론	가족치료 사례분석
고미영	2000	문헌 연구 (사례소개)	이야기치료 과정 사례	이야기치료	문헌 사례를 통한 치료모델 소개
김성천	2000	문헌 연구 (사례소개)	여성주의 가족치료 사례	여성주의 가족치료	문헌 사례를 통한 치료모델 소개
김유순	2000	문헌 연구 (사례소개)	여성주의 가족치료 사례	여성주의 가족치료	문헌 사례를 통한 치료모델 소개
홍숙자	2002	질적 연구 (사례연구)	편집증 아내를 둔 52세 직물도매업 사장인 남성(개인)		개인치료 사례분석
이창숙	2002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46세 남편, 43세 부인(부부)		부부치료 사례분석
노혜련	2003	문헌 연구 (사례소개)	가정폭력 가해자인 32세 미군 장교(가족)	해결중심치료	Insoo Kim Berg의 문헌 사례를 통한 치료모델 소개
신영화	2003	질적 연구 (사례연구)	남편(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겪는 42세 아내, 15세 아들 15세, 11세 딸(가족)		가족치료 사례분석
이인수	2003	질적 연구 (사례연구)	57세 아버지, 56세 어머니, 정신분열증 환자인 아들, 27세 여동생(가족)		가족치료 사례분석

〈표 3〉『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 연구의 전반적 경향(N=77)(계속 1)

저자	발표연도	연구방법	분석 대상	개입 모델	자료분석 방법
황혜숙, 신선인	2003	질적 연구 (사례연구)	가정폭력 가해자인 40대 후반의 기혼남성(개인)	해결중심치료	개인치료 사례분석
김도애, 이은화	2003	질적 연구 (사례연구)	전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받은 56세 이혼 여성(개인)	대상관계이론	개인치료 사례분석
김유숙	2003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이혼가족(전남편, 이혼여성, 중 1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딸)가족	해결중심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사례분석
박태영, 정선영	2004	질적 연구 (사례연구)	고부갈등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 남편(부부)		- 부부치료 사례분석 - 양적 측정도구: 결혼만족도, 부부간 의사소통, 성적 만족도 사전·사후비교 - 질적 분석: 대화내용 분석
정은, 이경옥	2005	질적 연구 (사례연구)	36세 기혼 여성, 8세 아들, 6세 딸(가족)	해결중심치료	가족치료 사례분석
박태영	2006	질적 연구 (사례연구)	50세 아내(혼외관계), 51세 남편(부부)		부부치료 사례분석
정은	2006	질적 연구 (사례연구)	아토피 증상이 있는 10세 여자 아동, 어머니 39세(모녀)		가족치료 사례분석
이경옥	2007	질적 연구 (사례연구)	41세 큰엄마, 11세 남자 아동, 6세 여자 아동 (가족)	이야기치료	가족치료 사례분석
최선영	2007	질적 연구 (사례연구)	아동기에 학대 피해를 겪은 30세 여성(개인)		개인치료 사례분석
박태영	2007	질적 연구 (사례연구)	도벽증상을 보이고 거짓말을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46세 아버지, 43세 어머니(재혼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축어록을 통한 그래프의 관계망 전시
선우현	2007	질적 연구 (사례연구)	9세 여자 아동,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위계질서가 혼란한 가족)	가족놀이치료	가족치료 사례분석
박태영, 박소영	2007	질적 연구 (사례연구)	성폭력 피해자인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언니, 어머니, 아버지(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근거이론에 따른 축어록 분석
최광현	2008	질적 연구 (사례연구)	18세 막내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어머니(모녀)	가족세우기치료	가족치료 사례분석
박태영, 은선경	2008	질적 연구 (사례연구)	중학교 2학년인 가출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효과 매트릭스) 및 그래프 - 초 이론적 모델 제시
임원선	2008	질적 연구 (사례연구)	연구원인 41세 남성, 38세 부인 (부부)		부부치료 사례분석
박태영	2008	질적 연구 (사례연구)	48세 어머니, 마리아나를 피는 19세 아들(모자)		- 가족치료 사례분석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효과 매트릭스) - 네트워크 분석
최광현	2009	질적 연구 (사례연구)	부모상실의 트라우마를 겪은 대학교 2학년 여학생(개인)	트라우마가족치료	개인치료 사례분석
정은, 강수진	2009	질적 연구 (사례연구)	노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여성(개인)	해결중심치료	개인치료 사례분석

〈표 3〉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 연구의 전반적 경향(N=77)(계속 2)

저자	발표연도	연구방법	분석 대상	개입 모델	자료분석 방법
박태영, 문정화	2010a	질적 연구 (사례연구)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내면화·외현화 문제를 겪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38세 아버지, 33세 어머니, 11세 딸, (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근거이론에 따른 축어록 분석
박태영, 문정화	2010b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이혼위기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인과 남편, 학습문제를 겪는 아들(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근거이론에 따른 축어록 분석 - 매트릭스 및 네트워크 분석
황경애	2010	질적 연구 (사례연구)	미혼여성 35세(개인)	사타이어 변형체계적 치료	- 개인치료 사례분석 - 네트워크 분석
최윤숙, 김갑숙	2010	질적 연구 (사례연구)	가정폭력을 하는 48세 남편, 43세 아내, 중학교 3학년 딸, 중학교 1학년 아들(가족)	가족미술치료, 해결중심치료	- 가족치료 사례분석 - 결혼만족도 검사: 사전·사후 비교
최진태, 황경애	2011	질적 연구 (사례연구)	40대 중년여성(개인)	사타이어 변형체계적 치료	- 개인치료 사례분석
박태영, 신원정	2011a	질적 연구 (사례연구)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18세 여고생, 51세 아버지, 47세 어머니, 15세 여동생 (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네트워크 및 매트릭스 분석
조지용, 박태영	2011	질적 연구 (사례연구)	갈등으로 이혼위기를 겪고 있는 결혼 5년차 부부(부부)		- 부부치료 사례분석 - 네트워크 및 매트릭스 분석
정은	2011	질적 연구 (사례연구)	외도문제를 호소하는 40대 전문직 기혼 여성 (개인)	조정심치료	- 개인치료 사례분석
박태영, 신원정	2011b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음주 문제가 있는 28세 아들, 60세 아버지, 53세 어머니, 27세 딸 (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군집화된 매트릭스 분석
김요완	2012	질적 연구 (사례연구)	성폭력 가해 청소년인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아버지, 어머니(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정혜정	2012	이론 연구 (사례소개)	Insoo Kim Berg의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 사례	해결중심치료	- 문헌 사례를 통한 치료모델 소개 - 대화분석연구
김금자	2012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이혼위기 부부(부부)		- 가족치료 사례분석 -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박태영, 유진희	2012	질적 연구 (사례연구)	자해행동을 하는 14세 첫째 딸, 44세 아버지, 38세 어머니 38세, 9세 둘째 딸 (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네트워크 및 매트릭스 분석
이현주, 엄명용	2012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이혼위기 부부(부부)	통합적 부부치료	- 부부치료 사례분석 - SCT, MMPI를 이용한 사전·사후 비교
박태영, 조지용	2012	질적 연구 (사례연구)	부적응행동(집단따돌림, 도벽, 거짓말)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아동, 47세 아버지, 47세 어머니 (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네트워크 및 매트릭스 분석
안혜상, 최정숙	2012	질적 연구 (사례연구)	화병을 경험하는 아내와 남편(부부)	정서중심치료	- 부부치료 사례분석 - 예비적 화병 척도, 우울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의 사전·사후 분석
박태영, 문정화	2013	질적 연구 (사례연구)	분노조절이 안 되는 초혼 남편과 재혼 부인 (부부)		- 부부치료 사례분석 - 네트워크 및 매트릭스 분석
박태영, 김선희	2013	질적 연구 (사례연구)	양극성장애를 겪는 23세 큰 딸, 20세 둘째 딸, 19세 아들, 53세 남편, 52세 아내 (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네트워크 및 매트릭스 분석
박태영	2014	질적 연구 (사례연구)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이 있는 둘째 딸 18세53세 남편 53세, 51세 부인 (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네트워크 및 시간변화에 따른 효과매트릭스 분석

〈표 3〉『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게재된 단일사례 연구의 전반적 경향(N=77)(계속 3)

저자	발표연도	연구방법	분석 대상	개입 모델	자료분석 방법
임향빈	2014	질적 연구 (사례연구)	빈곤여성가구주인 지역자활센터 근무 부인, 남편, 중학교 1학년 첫째 아들, 초등학교 6학 년 둘째 아들(가족)	대상관계 가족치료	- 가족치료 사례분석 - MMPI를 이용한 사전·사후 비교
박보라, 최정숙	2014	질적 연구 (사례연구)	자살사고를 가진 청소년 및 가족(가족)	정서중심치료	- 가족치료 사례분석 - 자살사고 척도, 우울척도의 사 전·사후 비교
송정숙, 배덕경, 전영주	2014	질적 연구 (사례연구)	학령기자녀를 둔 30세 양육미혼모(개인)	이야기치료	- 개인치료 사례분석
남경숙, 전영주	2014	질적 연구 (사례연구)	부모학대를 하는 15세 막내아들, 51세 부인, 24세 큰딸, 20세 작은딸(가족)		- 가족치료 사례분석 - 녹화 슈퍼비전의 활용
유진희, 박태영	2015	질적 연구 (사례연구)	대인기피증이 있는 21세 딸, 47세 남편, 43세 부인, 20세 아들(가족)	MRI모델 Bowen모델	- 가족치료 사례분석 - 네트워크 및 시간변화에 따른 효 과매트릭스 분석
최승미	2015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인터넷 외도 문제가 있는 신혼기의 30대 남편 과 부인(부부)		- 부부치료 사례분석 - 부부관계적응척도, 전반적 불만족 척도, 한국판 결혼만족도 척도의 사전·사후 비교
윤경자	2015	질적 연구 (사례연구)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40대 남편과 부인(부 부)		- 부부치료 사례분석
전혜성	2015	질적 연구 (사례연구)	아내의 부정망상으로 인해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남편과 부인(부부)	MRI 모델 취약성-스트레스모델	- 부부치료 사례분석 - 결혼만족도 척도의 사전·사후 비교
최혜정	2015	질적 연구 (사례연구)	성폭력 피해경험 여성 10명으로 이루어진 소 집단		- 집단치료 사례분석 - 근거이론 활용
김수연	2016	질적 연구 (사례연구)	30세 미혼여성(개인)	모래놀이치료 원가족작업	- 개인치료 사례분석
구자경	2016	질적 연구 (사례연구)	제혼가정 자녀인 25세 미혼여성(개인)		- 개인치료 사례분석 - 내러티브 분석
이화자	2016	질적 연구 (사례연구)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36세 아내, 39세 남편 (부부)	구조적 가족치료 취약성-스트레스모델	- 부부치료 사례분석
전혜성	2017	질적 연구 (사례연구)	자살자의 여동생 및 남동생, 70대 노모(가족)	위기개입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 가족치료 사례분석 - 우울감 및 삶의 이유 척도의 사 전·사후 비교
염은선, 전영주	2017	질적 연구 (사례연구)	큰아들이 부모폭력과 게임과몰입 문제가 있는 47세 아버지 와 44세 어머니(부부)	구조적 가족치료	- 부부치료(부모상담) 사례분석 - 질적 연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CAQDAS)을 이용한 축어록 분석
문혜리, 김명찬	2017	질적 연구 (사례연구)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관계외상’을 경험하는 자녀(개인)		- 개인 사례분석 -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 귀추 논리를 근거로 한 실용주의 적 관점의 자료 분석
손고은, 김명찬	2017	질적 연구 (사례연구)	정서회복과정을 보이는 부모화된 자녀(개인)		- 개인 사례분석 -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 귀추 논리를 근거로 한 실용주의 적 관점의 자료 분석
강진아	2017	질적 연구 (사례연구)	가정폭력을 행하는 70세 남편과 65세 아내(부 부)	정서중심치료	- 부부치료 사례분석 - 자존감 척도, 가족관계 갈등 유형 척도의 사전·사후 비교

중 부부를 단일분석단위로 설정한 연구가 19편, 개인이 분석단위가 된 연구가 18편으로서 가족치료의 사례분석에 반드시 부합되는 성격을 지니지 않은 논문도 상당 수 있었다. 분석단위 중 특이하게 개인 10명이 모인 소집단을 하나의 단일사례로 설정한 연구(최혜정, 2015)도 시도되었다.

넷째, 단일사례 연구가 다루고 있는 개입모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치료모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통합적 접근이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개입모델을 제목에 표현하지 않은 많은 논문들은 여러 개의 치료모델을 절충해서 사용하거나 통합적으로 시도하는 개입과 관련되어 있었다. 단일사례 연구 논문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가족치료모델로 가장 많이 명시된 것은 해결중심치료모델(11편)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치료모델은 구조적 가족치료(4편), 이야기치료(3편), 대상관계치료(3편), 정서중심치료(3편), 사티어변형체계치료(2편), MRI치료(2편) 순이다.

다섯째, 전형적인 가족치료모델 외에 다른 치료적 개입을 시도한 연구 논문들이 다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중재(신성자, 2000), 가족미술치료(최선남, 1995; 최윤숙, 김갑숙, 2010), 가족놀이치료(김유숙, 2003; 선우현, 2007), 모래놀이치료(김수연, 2016), 가족세우기(최광현, 2008), 트라우마 가족치료(최광현, 2009)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독특한 임상적 개입을 시도하면서도 전형적인 가족치료와 접목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도(道)정신치료라는 상당히 특이한 개입기법을 개인치료의 맥락에서 시도한 단일사례 연구(정은, 2011)도 있었다.

여섯째, 자료분석 방법 중 질적 사례연구의 성격을 띠면서도 간략한 사전·사후 질문지를

활용한 연구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이 사용한 질문지를 비모수통계기법을 통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양적 분석을 시도하는 본격적인 혼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관적인 질적 사례분석을 보완하는 보조적 장치로서 초보적 수준에서 이러한 질문지의 사전·사후 비교를 시행하였다.

일곱째, 비록 소수이지만 질적 연구로서의 단일사례연구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연구방식을 접목한 연구들이 있었다. 남경숙과 전영주(2014)의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를 수행하면서 녹화 슈퍼비전을 활용한 경험을 다루었으며, 염은선과 전영주(2017)의 연구는 질적 연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CAQDAS)을 이용한 축어록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단일사례 연구의 종래 방식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추가하였다.

여덟째, 그 외 단일사례 연구들에서 상당수 발견되는 연구들은 가족상담 과정 자체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시도한 것들이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가족상담에 개입한 과정 자체를 기술하고, 개입 후의 변화를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축어록 삽입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상담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가족치료연구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가족치료』에 1993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단일사례 연구논문 77편을 대상으로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 단일사례 연구의 경향 분석 및 성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학회지에 게

재된 전체 논문 중 단일사례 연구의 비율을 살펴보는 빈도분석과 제목과 초록의 기간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한 다음, 문헌고찰을 통해 단일사례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사례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회지에 게재되는 전체 논문 대비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학회지가 창간된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단일사례 연구논문 발표 편수가 증가한 것은 학회지의 중간 발행, 가족치료 연구 인력의 확보, 가족상담 및 치료의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진입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학회지의 중간 발행 측면에서 보면, 『한국가족치료학회지』는 2011년부터 종전 1년에 2회 발행에서 4회 발행으로 증가됨으로써 게재된 연구논문의 편수가 늘어나면서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편수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치료의 연구 인력 확보의 측면에서 보면, 가족치료를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전공 학과로 설치하는 대학수가 점차 늘어난 것에 기인할 수 있다(최중진, 고정은, 2018). 이를 통해 연구에 투입되는 인력을 예전보다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가족치료 연구 전반이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단일사례 연구논문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상담 및 치료의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진입 측면에서 보면, 입법화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2006년부터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이 실시

되면서 가족치료 서비스를 보급하는 임상 현상이 확보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상담사례에 접근하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단일사례 연구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목할 것은 학회지에 게재되는 전체 논문 대비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창간 시기부터 2017년까지 학회지에 발표되는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비율은 전체 논문의 19.9%로 이는 5편 중 1편 꼴이다. 이러한 수치는 아직까지 한국가족치료 연구에서 단일 사례 연구의 존재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단일사례 연구가 아직까지도 한국의 가족치료 연구자들이 연구 작업에서 ‘친숙하게’ 시도하는 주요한 연구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회지에 게재되는 전체 논문 대비 단일사례 연구가 다소 변이는 있지만 최근에 오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점을 주는 바는 의미심장하다. 이는 아마도 한국가족치료 연구에서의 새롭고도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도입(김현수 등, 2018)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가족치료연구 방법에서 참신하고 세련된 고급통계의 적용이나 정통 질적 연구방법론의 변형이나 활용 등이 시도되면서 한층 진보된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된 연구논문들이 시도되고 있고, 따라서 기존에 많이 쓰던 방식인 단일사례 연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해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단일사례 연구논문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키워드의 빈도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구획한 기간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뚜렷하게 주목되는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다가 5년 단위의 기간들 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변화’, ‘내

담자’, ‘연구’와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 ‘변화’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를 따져보자면, 이는 가족치료를 포함해서 모든 상담 및 심리치료가 시작된 초기부터 현재 시점까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변화’(Gottman & Gottman, 2018; Watzlawick, Weakland & Fisch, 1974)이기 때문이다. 가족치료가 한국 사회에서 본격화되고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제 가족치료도 이러한 상담의 본질에 다가서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것을 단일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할 때는 그 상담과정을 통해 보이는 ‘변화’에 관심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화’와 관련하여, 단일사례 연구는 문이 다루고 있는 상담 상황에서의 주역이 ‘내담자’ 이므로 이 키워드도 상당히 출현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라는 키워드는 가족의 기능 변화나 가족 문제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임상이나 현장을 강조했던 가족치료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강조되어 온 것이다. 특히 단일사례 연구에서도 점차 엄격하고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고조되면서 이 용어에 대한 비중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험’은 개별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일사례 연구가 질적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당연히 부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많은 질적 연구방법들이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험과정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데(Creswell, 2007, 조홍식 등 역, 2010), 한국 가족치료의 단일사례 연구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에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단일사례연구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질적 연구 성격의 사례 연구가 지배적이다.

『한국가족치료학회지』가 창간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단일사례 연구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질적 연구의 성격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발표된 단일사례 연구들 중 양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 실험설계 연구는 단 한 편도 없다. 이러한 가족치료 연구 현실이 한국 가족치료학계에서 ‘단일사례 연구’는 웅당 질적 연구인 것으로 오해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인다. 하지만 ‘단일사례 연구’는 실상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가 가능하다(Crane, 1985; Kazdin, 2011; Mennenga & Johnson, 2014). 오히려 과학성과 체계성을 중시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분야에서는 실험설계를 실시하는 양적 연구로서의 ‘단일사례 연구’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Crane, 1985; Dugard et al., 2012). 그런데, 이러한 엄격한 실험절차에 따른 연구설계를 시도하는 양적 연구가 생경한 한국의 가족치료 연구는 질적 방법으로서의 사례연구가 곧 단일사례 연구방법인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바탕에는 임상에 치중하고 연구를 경시하는 풍토, 적절한 연구 기반이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척박한 연구 여건, 실험설계 등의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대학원 교과과정 등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단일사례 연구는 가족치료 연구자가 수월하고 용이하게 대상에게 접근하는 이점을 활용하여 임상적 가치가 있는 가족치료 현장에서의 개입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되기도 한다(Kazdin, 1982, 2011). 하지만 여

기서 ‘어떻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한국 가족치료 연구에서 자주 채택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단일사례 연구는 그것이 지닌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 바로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많은 선행연구들(Dickey, 1996; Dugard et al., 2012; Kazdin, 2008, 2011; Mennenga & Johnson, 2014)에서 지적하듯이, 질적 연구로서의 사례연구(case study)는 ‘통제’와 ‘조작’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인과적 설명이나 효과성 검증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데도, 현재까지 수행된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의 단일사례 연구논문들 중 상당수가 질적 연구 성격의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면서 개입한 가족치료 모델 및 상담기법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만일 ‘질적 연구’로서의 사례연구(case study)의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과적’ 관계 설정이나 해석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상담과정 자체를 ‘기술적(descriptive)’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단일사례 연구 중 질적 연구방법론에 토대를 둔 연구방법인 문화기술지를 사용한 사례연구(김금자, 2012; 문혜리, 김명찬, 2017; 손고은, 김명찬, 2017), 내러티브방법을 사용한 사례연구(구자경, 2016) 등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Stake(1995)가 말한 본질적인(intrinsic) 사례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가족치료적 개입을 접목시킨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유사하게, 단일사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본질적인 사례연구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던 피닉스 게이지처럼 가족치

료 분야에서 극단적으로 특이한 것이라면 단일한 사례의 연구일지라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것이다(Kazdin, 2011). 혹은 마치 의학 분야의 임상사례 논문처럼 종전까지 개입했던 이론이나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연구라면 단일사례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원래 질적 연구로서의 사례연구도 그런 독특한 경우에 대해서 단일사례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Creswell, 2007; 조홍식 등 역, 2010). 하지만 그런 사례 대상의 특이성이나 개입방식의 탁월성을 보여줄 수 없는 평범한 사례에 전형적인 개입모델과 기술로 접근한 것을 단일사례 연구에서 묘사하고 개입의 효과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화의 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고 논리적 설득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이점이 별로 없는 평범한 내담자의 가족치료 개입상황을 단일사례연구로 구성하고 한 개별사례의 회기 분석을 실시하거나 축어록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는 방식은 실상 상담사례보고서와 별로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고, 학술 논문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구적(instrumental) 차원에서 단일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Stake,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가족치료와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논지를 전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일사례를 수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자면, 최연실과 김희정(2011)의 단일사례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 청소년의 상담 축어록을 통해 상담자 의도와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대화분석의 적용을 모색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가족치료 연구는 방향성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임상 분야이면서도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에서 벗어나 관찰이나 실험 연구 등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에 눈을 돌려야 할 단계이다. 그런 점에서 단일사례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편리성이 높은 연구방법이다. 분석 대상이 단일하므로 연구비용도 다른 복수의 대상에 비하여 절감될 수 있고, 실험조건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질적 연구 성격의 단일사례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간단하고 용이한 실험조건 안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Gottman과 Gottman(2018)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의지한 가족치료 개입의 한계를 지적하고, 연구자에 의한 행동관찰이나, 정서적 지각을 체크하는 코드 다이얼의 사용, 생리적 측면을 측정하는 기계들을 사용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그러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도출된 치료 프로그램이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그들의 연구는 막대한 양의 연구기금을 투입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지니고 있는 단일사례 연구와는 거리가 있겠지만, 그들이 역설하는 관찰이나 실험의 중요성은 현재의 가족치료 연구 상황에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가족치료 분야에서 이제껏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단일사례 연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학회지 게재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성찰 및 방향성을 고민해보고자 했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학술지 외에 다른 관련 학회의 학술지 게재 논문들이나 학위논문, 단행본 등은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한 담론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을 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술적(descriptive) 수준에서의 분석방식을 채택하였다. 큰 범주에서 보면 빅데이터 분석 방식 중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도입하였지만, 심층적인 분석 수준까지 들어가지 않고 주로 빈도분석 정도를 활용하였다. 향후의 연구에서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방식을 채용하면 더 생산적인 결과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한국 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단일사례 연구방법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의 단일사례 연구를 진화시킬 수 있는 보다 더 획기적이고 참신한 연구설계, 특히 실험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가족치료연구 분야에서 단일사례 연구의 적절한 방향 정립과 활성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연구와 임상과의 연계를 이루는 증거 기반 실천의 풍토 정착 필요성을 논의하는 탐색적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아 (2017). 가정폭력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정서중심 부부치료 사례연구, *가족과가족치료*, 25(3), 419-437.

- 고미영 (2000). 이야기치료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2), 111-136.
-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구자경 (2016). 한 재혼가정 성인자녀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가족과가족치료*, 24(2), 207-226.
- 권소영, 박지수, 이재림 (2018).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양육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57-72.
- 김금자 (2012). 이혼위기 부부의 가족치료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275-301.
- 김대식 (2014). 내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서울: 문학동네.
- 김도애, 이은화 (2003).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담사례 연구: 패어배언의 분열적 방어와 도덕적 방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2), 101-131.
- 김수연 (2016). 모래놀이치료를 병행한 원가족 작업 사례연구. *가족과가족치료*, 24(1), 73-99.
- 김영애 (1996). 통합적 가족치료 접근에 의한 부부갈등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1), 25-46.
- 김요완 (2012).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가족체계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1-22.
- 김유숙 (1993). 가족치료에서 나타난 등교거부 아동가족의 특성.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 105-120.
- _____ (2003). 놀이를 활용한 이혼가족의 해결중심단기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2), 77-99.
- 김종만 (1995). 역설지향적 방법을 이용한 불안장애 환자의 부부치료 사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1), 85-118.
- 김종옥, 정수경 (1994). 고부갈등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 41-56.
- 김진숙 (2000). 대상관계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2), 137-163.
- 김현수, 노미화, 조성봉(201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 분석: 임상치료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가족치료*, 26(4), 729-760.
- 김효남, 박태영 (1996). 의사소통 문제를 지닌 알콜중독자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4(1), 47-80.
- 김희진 (1998). 여고생의 강박증을 다룬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1), 79-106.
- 남경숙, 전영주 (2014). 내담자가 참여한 녹화 슈퍼비전의 임상적 활용: 십대자녀의 부모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4), 301-322.
- 노혜련 (2003).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해결중심적 개별상담의 효과가능성에 대한 모색: Insoo Kim Berg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79-215.
- 문혜리, 김명찬 (2017).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관계외상'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가족과가족치료*, 25(2), 155-179.
- 박보라, 최정숙 (2014). 자살사고를 가진 초기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3), 275-300.
- 박성희 (2004). 상담학 연구방법론: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새로운 지평. 서울: 학지사.
- 박우철 (2018). 비디오 코딩시스템을 활용한 결혼 김진. 가족치료의 실천과 연구, 그 이분법을 넘어. 2018년 (사)한국가족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9-48. 103-117.
- 박태영 (2006). 외도를 한 중년부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2), 91-133.
- _____ (2007). 도벽과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재혼가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43-158.
- _____ (2008). 마리화나 피는 아들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57-95.

- _____ (2014).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을 가진 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2), 131-175.
- 박태영, 김선희 (2013).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2), 147-176.
- 박태영, 문정화 (2010a). 부모의 이혼진행과정에서 내면화·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1), 107-130.
- _____ (2010b). 이혼위기로 인한 부인의 우울증과 아들의 학습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1), 27-61.
- _____ (2013). 분노조절이 안 되는 초혼 남편과 재혼 부인의 결혼초기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23-56.
- 박태영, 박소영 (2007). 성폭력을 당한 여중생의 가족치료 사례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43-363.
- 박태영, 신원정 (2011a).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여고생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233-265.
- _____ (2011b). 음주문제를 가진 성인 자녀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2), 63-92.
- 박태영, 유진희 (2012). 자해행동을 하는 자녀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225-251.
- 박태영, 은선경 (2008). 가출청소년의 가족치료 사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49-66.
- 박태영, 정선영 (2004).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인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1), 141-177.
- 박태영, 조지용 (2012). 부적응행동(집단따돌림·도벽·거짓말)을 하는 초기 청소년자녀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601-626.
- 선우현 (2007). 위계질서가 혼란된 가족의 가족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89-406.
- 손고은, 김명찬 (2017). 부모화된 자녀의 정서 회복과정에 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가족과가족치료, 25(3), 595-619.
- 송정숙, 배덕경, 전영주 (2014). 학령기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에 대한 이야기치료 단일사례연구: 부모됨의 정체성 재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4), 323-345.
- 신성자 (2000).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들을 위한 학제간 팀 이혼중재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1), 31-58.
- 신영화 (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성인아이성향 자녀의 가족에 대한 개입.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27-153.
- 안양희 (1995). 금연을 위한 간호중재: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적용 :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1), 65-84.
- 안혜상, 최정숙 (2012). 화병(火病)을 경험하는 아내가 있는 부부에 대한 정서중심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403-429.
- 염은선, 전영주 (2017). 청소년자녀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상담 사례연구: 부모폭력과 게임 과몰입 청소년자녀의 부모에 대한 구조적 가족치료 개입을 중심으로. 가족과가족치료, 25(2), 347-373.
- 유진희, 박태영 (2015). 원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있는 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MRI의 의사소통모델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 중심으로. 가족과가족치료, 23(1), 217-238.
- 윤경자 (2015). 외도로 인한 이혼위기의 부부상담: 사례연구. 가족과가족치료, 23(1), 55-88.
- 이경옥 (2007). 위탁가정 모자 이야기치료 사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89-209.
- 이수상 (2013).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_____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영분 (1995). 청소년자녀문제 치료를 위한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모델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1), 21-39.
- 이인수 (2003). 형제자매 갈등이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상담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07-126.
- 이정연 (1999). 구조적 가족치료를 적용한 우울증 주부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7(2), 27-43.
- 이창숙 (2002). 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가족상담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1), 145-170.
- 이현주, 엄명용 (2012). 이혼위기 부부의 통합적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201-224.
- 이화자 (2016). 공황장애 아내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구조적 가족치료 이론 및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기반으로. *가족과가족치료*, 24(4), 573-598.
- 임원선 (2008). 어머니와의 자아분화수준이 낮아 직장과 가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31-48.
- 임향빈 (2014). 가족갈등 문제를 가진 빈곤여성가구의 변화과정 연구: 대상중심 가족치료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2), 97-130.
- 전영주, 김수지 (2018). 부부의 대화주제 및 상호작용 유형 미시분석. *가족치료의 실천과 연구*, 그 이분법을 넘어. 2018년 (사)한국가족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9-48.
- 전혜성 (2015). 아내가 부정망상을 가진 중년 기부부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MRI 가족치료이론 및 취약성-스트레스모델에 기반하여. *가족과가족치료*, 23(3), 525-552.
- _____ (2017). 자살 유가족의 외상 대처 및 가족재구조화를 위한 위기개입 가족상담: 위기개입모델 및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에 기반하여. *가족과가족치료*, 25(2), 375-400.
- 정문자 (1995). 십대소녀의 가족치료에 적용된 해결중심적 치료기법 및 치료내용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1), 1-20.
- 정은 (2006). 아토피 증상을 가진 아동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2), 1-21.
- _____ (2011). 외도문제를 호소하는 여성의 도정신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2), 1-17.
- 정은, 강수진 (2009). 생활시설 입소 노인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해결중심단기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21.
- 정은, 이경옥 (2005). 가정폭력 피해 모녀에 대한 해결중심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1), 1-29.
- 정혜정 (2012).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 사례에 대한 대화분석 연구 : 모자갈등 사례에 기초한 치료자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85-109.
- 조지용, 박태영 (2011). 갈등으로 인한 이혼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2), 41-62.
- 최광현 (2008).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가족세우기 치료의 적용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22-149.
- _____ (2009). 부모상실의 트라우마에 대한 트라우마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23-41.
- 최빛내, 최우정, 최연실 (2018). 커플치료의 연구동향 분석. *가족과가족치료*, 26(2), 301-320.
- 최선남 (1995). 도벽아동의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1), 119-135.
- 최선령 (2007). 아동기 학대피해 여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59-188.
- 최승미 (2015). 배우자의 인터넷 외도 문제를 호소하는 부부치료 사례연구. *가족과가족치료*, 23(1), 157-185.
- 최연실(2018). 단일사례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치료연구에서의 성찰과 방향성 모색. 2018년 (사)한국가족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9-48.
- 최연실, 김희정 (2011). 청소년의 상담 사례에

- 대한 대화분석의 적용 연구: 상담자 의도와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3), 793-809.
- 최윤숙, 김갑숙 (2010). 가정폭력 부부의 결혼 만족도 증진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 연구 -해결중심치료를 적용하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1), 107-130.
- 최인숙 (1994). 주의산만한 아동의 가족치료 사례: 해결중심적 단기치료 모델의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 57-75.
- 최중진, 고정은(2018). 2018한국가족치료 및 상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가족치료*, 26(4), 649-680.
- 최진태, 황경애 (2011). 중년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사티어 변형 체계적 치료를 적용한 상담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1), 53-76.
- 최혜정 (2015) 성폭력 경험여성의 용서과정에 관한 연구. *가족과가족치료*, 23(1), 187-216.
- 홍숙자 (2002). 편집증 아내를 둔 남편에 대한 개입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1), 171-189.
- 황경애 (2010). 사티어 변형 체계적 치료(STST)를 적용한 미혼여성의 상담 사례 연구: 내담자 병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09-134.
- 황혜숙, 신선인 (2003). 법정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해결중심 가족치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41-75.
- Crane, E. R. (1985). Single-case experimental designs in family therapy research: Limitations and considerations. *Family Process*, 25, 69-77.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원제: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원저 2007년 발행).
- Dickey, M. H. (1996). Methods for single-case experiments in family therapy. In D. H. Sprenkle & S. M. Moon(Eds.), *Research methods in family therapy*(pp. 264-285). New York: Guilford press.
- Dugard, P., File, P., & Todman, J. (2012). *Single-case and small-n experimental designs : A practical guide to randomization tests*. New York: Routledge.
- Gottman, J. M., & Gottman, J. S. (2018). *The science of couples and family therapy: Behind the scenes at the "love lab"*.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Johnson, L. N.(2018). Why is the study of change important to the practice of couple and family therapy? 가족치료연구에서의 성찰과 방향성 모색. *가족치료의 실천과 연구, 그 이분법을 넘어. 2018년 (사)한국가족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1-26.
- Kazdin, A. E. (1982). *Single-case research designs: Methods for clinical and applied setting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8a). Evidence-based treatments and delivery of psychological services: Shifting our emphases to increase impact. *Psychological Services*, 5, 201-215.
- _____ (2008b). Evidence-based treatments and practice. New opportunities to bridge clinical research and practice, enhance the knowledge base, and improve patient care. *American Psychologist*, 63, 146-159.
- _____ (2011). *Single-case research designs: Methods for clinical and applied settings*(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ennenga, K. D., & Johnson, L. N.(2014). Single case research with couples and families. In R. B. Miller & L. N. Johnson(Eds.), *Advanced methods in family therapy research: A focus on validity and change*(pp. 196-207). New York: Routledge.
- Rizvi, S. L., & Nock, M. K. (2008). Single-case experimental designs for the evaluation of treatment for self-injurious and suicidal behavi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 498-510.

- Scruggs, T. E., & Mastropieri, M. A. (1998). Summarizing single-subject research : Issues and applications. *Behavior Modification*, 22, 221-242.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ate, R. L., McDonald, S., Perdices, M., Togher, L., Schultz, R., & Savage, S. (2008). Rating the emthodological quality of single-subject designs and *n*-of-1 trials: Introducing the single case experimental design (SCED) scale. *Neuropsychological Rehabilitation*, 18, 385-401.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e, R. (1974). *Change: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 Yin, R. K. (2011).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역, 원제: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4th ed.)). 서울: 한경사. (원저 2009년 발행).
- 네이버지식백과 (2019). 사례연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0845&cid=42266 & categoryId=56815](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0845&cid=42266&categoryId=56815)
- 네이버블로그 (2019). 사례연구와 단일사례연구. <http://m.blog.naver.com/jck81/221392169675>
- ☐ 논문접수일 : 2019년 01월 25일
- ☐ 심사시작일 : 2019년 02월 07일
- ☐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20일

**Analysis of Single-Case Studies
in Korean Family Therapy Research
- Focusing on Article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amily Therapy』 and 『Family and Family Therapy』 -**

Hee-Boon Bae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Sangmyung University)

Youn-Shil Choi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single-case studies within Korean family therapy research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For this purpose, we searched 77 articles applying single-case studies that had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 and 『Family and Family Therapy』 between 1993 and 2017. We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by using the technique of text mining in the Textom program and also performed literature review on the articles. **Results:** First, although the number of single-case study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s is steadil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single-case study articles as compared to the total articles is on the whole declining. Second, the frequency of the keywords appearing in the contents of single-case studies varies from 1993 to 2017 by 5 years. In the early days, there were no obvious keywords to be noted. Recently, ‘change’, ‘client’, ‘research’ and ‘experience’ have been emphasized. Third, the overall research trend of single-case studies is dominated by case studies with qualitative research characteristics. **Conclusions:**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exploratory basic work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roper direction and activation of single-case studies in the Korean family therapy research field, as well as to the further establishment of evidence-based practice linking research and clinical engagement.

Keywords: *single-case study, qualitative study, quantitative study, case study, experimental design research*